

# 19세기 증엽 중앙아시아 여행기에 나타난

## 러시아의 타자 인식\*

—표트르 세묘노프의 『천산(天山)으로의 여행』—

기 계 형\*\*

- I. 들어가는 글
- II. 파편적 지식과 과학적 탐구 사이에서
- III. 과학적 탐사와 민족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 IV. 글을 나가며

•

여행기는 타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의 진원지이면서 동시에 낯선 세계를 직접 경험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러시아인의 여행기를 통해 중앙아시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 글은 중앙아시아 여행기에 드러나는 타문화 인식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19세기 증엽 이후 러시아사회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 여행기로서 표트르 세묘노프의 『천산으로의 여행』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19세기 전반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사회의 이해, 3장에서는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 2007-362-B00013).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세묘노프의 『천산으로의 여행』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논문은 문화 간 상호인식의 근본적 조건과 한계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

천산으로의 여행, 러시아제국, 중앙아시아탐험, 러시아제국지리학회,  
표트르 세묘노프

## I. 들어가는 글

15세기 이후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 뒤이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대항해의 시대’를 열었을 때, 또 다른 한편에서 러시아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트베리의 상인 아파나시 니키틴이 1468년부터 1474년까지 카스피 해, 인도양, 흑해를 돌며 인도를 찾아 떠났던 여행을 비롯해,<sup>1)</sup> 1581년부터 1585년까지 진행된 예르마크의 시베리아 원정은 부와 권력이라는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떠나는, 그러나 아직은 정교회 신앙이라는 중세적 전망에 갇혀있다는 점에서 보면 또 다른 순례의 여정일 수 있었다.<sup>2)</sup>

그 후로 20세기 초까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새로운 주자들이 오세아니아와 태평양의 섬들에서부터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내륙 곳곳, 그리고 북극해와 남극해와 같은 극한의 바다를 향한 탐험을 하는 동안, 다른 한 쪽에서 러시아제국(그리고 이후의 소련) 역시 때

1) 트베리 상인 아파나시 니키틴(Афанасий Никитин, ?-1475)은 1466년에 상품을 싣고 북카프카스의 “시르판 땅”으로 떠났으나, 아스트라한 부근에서 타타르인들에게 짐을 약탈당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3년 동안의 갖은 고생 끝에 1469년 인도에 도달했으며 카스피 해, 인도양, 흑해를 돌면서 겪은 흥미로운 경험에 대해 여행기(*Хождение за три моря Афанасия Никитина*)를 남겼다. 현대어 번역본은 다음 참조. Л. С. Семёнов, *Путешествие Афанасия Никитина*, Отв. ред. Р. Г. Скрынников, М.: Наука, 1980. <http://www.bibliotekar.ru/rus/6.htm> 인터넷에서 원본 제공됨.

2) 예르마크(Ермак Тимофеевич)는 시베리아 정복의 효시가 된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신화화 된 측면이 있으며, 연대기들마다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예컨대 레메조프(Семён Ульянович Ремезов, 1641-1721)의 연대기에서 나타나듯이 그의 시베리아 정복에는 종교적 내용이 가미되며 신성한 어조로 묘사된다. 즉, “신은 우리의 발아래에 있는 뱀, 전갈, 그리고 모든 적을 쳐부수고 산으로 올라가도록 기독교인의 세력, 힘, 용기, 성공을 부여해 주셨다. 그 신성한 명령 때문에 한 명의 기독교인이 천 명의 이교도를 패배시키며, 두 명의 기독교인이 10만 명을 압도하며, 이는 시베리아인들에게 딱 맞는 예였다.” Valerie Kivelson, *Cartographies of Tsardom: The Land and Its Meanings in Seventeenth-Century Russi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p. 152 재인용.

우 적극적으로 이러한 탐험에 참여했음은 물론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유라시아대륙의 내륙과 더 나아가 극동연해주로의 탐험에 집중되었다.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 혹은 탐험을 떠났으며, 그에 따라 여행담에서부터 면밀한 학문적 내용을 담은 탐험보고서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행기들이 등장했다.

주로 해상으로의 팽창을 꾀한 유럽의 여러 제국들과 달리 러시아제국은 각별히 육상에서 팽창을 시도하였다. 모피무역을 위해 시베리아를 향해 동진했던 스트로가노프가문(Строгановы)을 포함해,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졌던 방대한 제국 팽창의 역사는 계속해서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과의 조우를 의미했다. 특히 19세기 중엽이후 표트르 세묘노프(П. П. Семенов- Тянь-Шанский)와 니콜라이 프르췌발스키(Н. М. Пржевальский)처럼,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던 러시아지리학회 탐사대, 학자, 외교관, 군인들에서부터 개인적인 목적의 상인, 선교사, 의사, 여행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은 낯선 세계를 향했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민족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이러한 여행에 참여했다.

여행자들의 긴 행렬에는 초칸 발리하노프(Чокан Чингисович Валиханов, 1835-1865)처럼 카자흐인 출신의 지식인도 있었고, 부랴트인 출신의 이노켄티 피로주고프(Инокенти Пирожугов), 그리고 카자키 출신의 그리고리 포타닌(Григорий Николаевич Потанин, 1835-1920)도 있었다. 그리고리 포타닌의 경우에는 1870-90년대에 러시아지리학회의 지원을 받아 아내 알렉산드라 포타니나(Александра Викторовна Потанина 1843-1893)와 함께 중앙아시아로 탐험을 떠났다. 이 부부는 각기 여행노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중에 각자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sup>3)</sup> 아울러 유라시아와 아시아로

3) 그리고리가 해당지역의 민속정보, 지역의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알렉산드라는 여성과 아이들의 삶, 물질적, 종교적 삶에 집중하였다. 남편이 남성적 언어로, 러시아지리학회를 위한 학문적 글쓰기를 했다면, 알렉산드라는 대중을 상대로 글쓰기를 하였다. 다음의 여행기 안에 알렉산드라의 글이 포함됨. A. B.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는 독자적으로 여행을 떠났던 여성들도 있었다. 예컨대, 엘레나 블라바츠키야(Елена Влабцкая, 1831-91), 엘레나 아프렐레바(Елена Апрелева, 1846-91), 올라 골로브니나(Юля Голобнина) 등이 그들이다.<sup>4)</sup>

앞서 열거한 사람들의 여행기는 러시아제국의 영토적 확장,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이 러시아역사와 지리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과정뿐만 아니라, 남성여행자들과 다른 여성여행자들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는 낯선 세상에 대해 여행가들이 전해주었던 이야기들이 당대인들의 상상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상상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탐사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이야기, 갖가지 동식물표본과 천연광석들, 이국적인 자연환경에서 거주하는 토착민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일기나 보고서, 에세이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또한 그것은 출세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여행가들은 성공적으로 탐사를 마친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수많은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책이 발간되어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다. 예컨대, 표트르 세묘노프의 경우처럼 황제로부터 메달과 함께 짠-산스키(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라는 새로운 성을 부여받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sup>5)</sup> 프르췌발스키의 경우처럼 부와 명예를 한 몸에 거둬들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인으로서 탐험을 통해 출세한 사람들, 민족적 배경이 다르면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에 밀착해 탐

---

Потанина, Г. Н. Потанин, *Сибирь. Монголия Китай. Тибет. Путешествия длиною в жизнь*. Эксмо: Москва, 2014; Scott C. Matsushita Bailey, *Travel, Science, and Empire: The Russian Geographical Society's Expeditions to Central Eurasia, 1845-1905*, University of Hawaii, 2006. 3장 참조.

4) 여성작가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Katya Hokanson, "Russian Women Travelers in Central Asia and India," *The Russian Review* 70, 2011, pp. 1~19.

5) 1906년 표트르 세묘노프는 천산여행 50주년을 맞이해 니콜라이2세로부터 세묘노프-짠 산스키라는 성을 부여받았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해당된다.

험의 수준을 높인 사람들, 남편과 동반하거나 또는 독자적인 여행을 떠난 지식인 여성 탐험가와 여행가들이 만들어내는 인상적 여행보고서들, 그리고 이국적인 지역의 토착민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전시회들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식자층에게도 신빙성이 있는 사실로 간주되었다.<sup>6)</sup> 특히 그들의 여행기들과 외부세계에 대한 ‘지도그리기’는 식자층 사이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본질적으로 러시아는 무엇이며, 러시아제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던져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식자층의 노력이 타문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행기는 타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의 진원지이면서 동시에 낯선 세계를 직접 경험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중앙아시아를 다녀간 러시아인들의 여행기를 통해 이곳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밝히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왜 중앙아시아 여행기인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차로에 위치하는 중앙아시아는 러시아가 이른 바 유라시아제국으로 자리잡는 데 관건이 되는 지역이었으나, 오랫동안 오지로 남아있었으며 러시아제국에 가장 늦게 통합되었던 곳이었다. 어떠한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떠났는가? 왜 그들은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 그들은 중앙아시아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냈을까? 그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을까? 이 글은 중앙아시아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여행기록들과 정보들이 궁극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19세기 전반의 중앙아시아 및 아시아에 대한 파편적 지식들을 살펴보고, 분석텍스트로서 『천산으로의 여행』의 구체적 내용에

6) 러시아제국 내의 여러 민족들과 슬라브계 민족들의 전시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Этнографическая выставка 1867 года Общества любителей естествознания, антроп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стоящего при Имп. Москов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Москва: Тип. М.Н. Лаврова и К<sup>о</sup>, 1878.

집중할 것이다.<sup>7)</sup> 그럼으로써, 문화 간 상호인식의 근본적 조건과 한계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 II. 파편적 지식과 과학적 탐구 사이에서

### 1. 변경에 대한 지식의 확대

여행(Путешествие)은 낯선 공간으로의 이동과 귀환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여행은 관광(туризм)과 달리, 일을 목적으로 하여 떠나기도 하며, 떠났던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보다 다의적이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용어이다.<sup>8)</sup>

상인, 여행가, 학자와 같은 개인에서부터, 외교사절단, 탐험대와 같은 집단에 이르기까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으며, 여행의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인차원의 체험을 나타내는 여행기(여행담)나 견문록이 되기도 하고, 관료들의 대규모 집단여행으로서 순행록(巡行錄), 그리고 탐험(원정) 보고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여행자들이 낯선 여정을 통해 다른 공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을 마주하면서 얻게 되는 타자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지닌 세계인식의 지평을 넓혀 줄뿐만 아니라 그동안 감지할 수 없었던 자기 공간의 고유한 특징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7)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Москва: ОГИЗ, 1946. 프라드킨의 서문이 우수하다. 이 논문에서는 Эксмо출판사의 2014 판을 사용함을 밝힘.

8)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여행은 중요한 탐구대상이 되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조선 사람의 세계여행』, 글항아리, 2011; \_\_\_\_\_, 『세상 사람의 조선여행』, 글항아리, 2012; 김유철 외, 『동아시아 역사 속의 여행 - 경계, 정보, 교류』, 산치림, 2008; 임성모 외, 『동아시아 역사 속의 여행 - 네트워크, 정체성』, 산치림, 2008.

특히, 러시아제국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러시아인 여행자들이 맞닥뜨린 외부세계는 그 영토적 방대함만큼이나 다양한 것이었음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예컨대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있는 러시아인의 ‘이중적 정체성’과 연관되어 이루어진 당대 지식인들의 담론, 그리고 반세기 넘게 진행된 수많은 학문적 연구들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up>9)</sup>

러시아제국의 팽창과 함께 형성된 혼종적 정체성의 발전을 염두에 두면, 특히 19세기 초에 시작된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앙아시아(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는 불교도, 무슬림, 정교회 신자들이 함께 공존할 뿐만 아니라, 유목민과 정착민들의 거주공간으로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독특한 혼종의 문명이 싹튼 곳이다. 러시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는 19세기 초, 특히 니키타 비추린(Н. Я. Бичурин, 1777-1853)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sup>10)</sup> 그렇지만, 그 보다 훨씬 이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을 방문한 상인들, 여행자들, 혹은 다양한 이유로 이곳을 지나거나 머물게 되었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초기의 증거들은 비록 파편적이라 하더라도 러시아와 극동 사이의 연결지대인 중앙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전반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해주었다.<sup>11)</sup>

- 
- 9) 이에 관한 연구 성과는 방대하므로 다음의 최근 경향만 참조할 것. Владимир Бобровников, “Анатолий Ремнев как историк имперско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Ab Imperio*, vol. 1, 2012, pp. 151~159.
- 10) Н. Я. Бичурин, *Записки о Монголии, сочинённые монахом Иакинфом. С приложением карты Монголии и разных костюмов*. Т. 1~2, СПб., 1828; Н. Я. Бичурин, *Записки о Монголии / Предисл. Р. Б. Рыбакова, А. Н. Хохлова; Вступит. ст., коммент., словарь А. Н. Хохлова*,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Самара: ИД Агни, 2010.
- 11) 유네스코 분류방식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내몽골 자치구, 몽골, 티베트, 부랴트, 알타이산악지역, 바이칼지역, 카슈미르, 아프가니스탄, 이란북부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방대한 지역을 의미한다. Абашин,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и другие,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이리나 포포바(Ирина Попова)는 1818년에 설립된 러시아학술원 산하 ‘동방문헌박물관’(예전의 아시아박물관) 개관 190주년을 맞이해 이 기관이 소장한 동방문헌을 토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중앙아시아 탐험을 집대성하는 단행본을 발간하였다.<sup>12)</sup> 이 자료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름, 즉 대(大) 부하리아(Большая Бухария), 러시아투르크에스탄(Русский Туркестан), 중부아시아(Средняя Азия) 등으로 지칭되었다.

문헌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을 확인해보기로 하자. 중국문헌에서 중앙아시아는 한무제 시대의 장건의 원정 이후 오랫동안 “서역(西域)”으로 일컬어졌고, 18세기와 19세기 초 러시아와 유럽의 역사에서는 부하라 칸(Бухарское ханство)이 위치하여 대 부하리아로 불렸다. 17세기 말부터 대 부하리아는 러시아어 문헌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부하라 칸의 최고 오아시스지역(시르다리아, 아마다리아, 페르간 계곡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sup>13)</sup>

한편, 18세기 서방권 문헌에 등장한 투르크에스탄(Туркеста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영국인들은 이곳을 투르크인의 땅, 즉 투르크에스탄(Turkestan) 또는 투크-이스탄(Tuk-istan)으로 일컬었는데, 원래 이란어에서 유래하는 이것은 유목민 투르크족이 살던 페르가나와 부하라의 동쪽 영토를 부르는 이름이었다.<sup>14)</sup> 투르크에스탄은 19세기 전반에 서구에서 널리

M.: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8, с. 10~11.

12) И. Ф. Попова (ред.),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в конце XIX - начале XX века*, СПб: Славия, 2008. с. 11.

13) 그와 비교해 타림분지 지역의 카쉬가리아에 대해서는 소(小) 부하리아(Малая Бухария)라고 불렸다. 타림분지는 카쉬가리아(Кашгария)로 불렸으며, 북쪽의 발하쉬 호수와 남쪽의 천산산맥 사이의 방대한 지역으로서 세미레치예(Семиречье, 러시아어로 7개의 강이 흐르는 땅)로 불렸다. 7개의 강은 다음과 같다. 일리(Или), 카라탈(Каратал), 비엔(Биен), 악수(Аксу), 렵사(Лепса), 바스칸(Баскан), 사르칸트(Сарканд). И. Ф. Попова,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с. 11.

14) 러시아의 투르크에스탄 팽창에 대해서는 기계형, 「19세기 후반 타슈켄트 도시공간의 구조와 러시아 제국 권력의 재현」, 『러시아연구』, 22권 2호, 2013년, 2장 1

사용되었고, 곧 러시아에서도 수용되었다. 이리나 포포바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중엽에 러시아학자들에게 투르케스탄은 특히 오아시스지역(카쉬가리아, 그리고 오늘날의 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을 의미하였다. 투르크족이 카스피 해에서 로프 노르(Лопнор, Lop Nor)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장악하면서 투르케스탄에 점점 더 많은 지역이 추가되었음은 물론이다. 투르케스탄은 서투르케스탄(부하라 또는 러시아 투르케스탄)과 동투르케스탄(또는 중국의 투르케스탄)으로 지역을 나눌 필요가 생길 정도로 광대한 곳이 되었다.<sup>15)</sup>

새로운 변경 또는 새로운 선을 의미하는 신장(新疆)의 명칭이 18세기 말에 동투르케스탄 지역에 붙여졌는데, 청 왕조가 아시아 중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던 시기에 붙여졌다. 원래 신장은 중국의 변경이면 예외 없이 어디에든 붙여지던 이름이었다. 그러나 가경제(嘉慶帝, 1796-1820) 황제의 시기에는 새롭게 합병된 북서쪽 지역을 지칭할 때 제한적으로 신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였다.<sup>16)</sup>

그렇다면, 러시아인들은 언제부터 중앙아시아지역에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 처음에 그곳은 중국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만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중국과 처음으로 접촉하였던 시기는 멀리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몽골의 명에’하에 놓여있던 당시에 일단의 러시아인 죄수들이 쿠빌라이 칸의 원나라 왕조(1271-1368) 궁정에서 근위대로 복무하기 위해 몽골리아를 통해 중국으로 끌려왔다는 이야

절 참조.

15) 동투르케스탄은 몽골리스탄(Монголистан Могулистан)으로 불렸으며,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여기에 있었던 몽골 칸국(Монголистанское ханство)과 관련이 있다. 역사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지역인 준가리아(Джунгария)는 북쪽으로 몽골 알타이 산과 남쪽으로 천산 산맥 사이의 지역으로서 그 이름이 준가르족(또는 오이라트족 Ойрат)에서 나왔다. 오늘날 ‘동투르케스탄’과 ‘서역’은 청제국 시기(1644~1911)인 1884년에 세워진 신장주(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장위구르 자치주, Синьзян- Уйгур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район)와 동의어이다.

16) И. Ф. Попова,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с. 11.

기가 전해진다.<sup>17)</sup> 그 후 16세기에 러시아는 이반 페트로프(Иван Петров)와 부르나쉬 야미셰프(Бурнаш Ямышев)를 통해 카쉬가리아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얻었는데, 그들은 1567년에 이반 뇌제(Иван Грозный)에 의해 중국으로 파병된 아타만 카자키였다. 17세기 초 표트르대제 시기에 바실리 튜메네츠(Василий Тюменец, 1615), 이반 페틀린(Иван Петлин, 1618), 그리고 표도르 바이코프(Фёдор Байков, 1654)가 이끄는 외교사절단이 서몽골리아를 경유해 중국으로 여행했다. 1713년에는 토볼스크 상인 트루쉬니코프(Ф. Трушников)가 쿠쿠 노르(Кукунор) 호수와 황허 강 상류에 이르렀다. 18세기에는 필립 세르게예비치 예프레모프(Филипп Ефремов, 1750-1811?)가 카쉬가리아를 여행한 후에 동투르크스탄과 중부아시아에 한 인상을 기록하는데 그 안에 카쉬가리아와 야르켄트(Яркент)의 인구와 상업에 대해 정보가 들어있다.<sup>18)</sup>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중부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중국연구자 니키타 야코블레비치 비추린에 의해서였다. 1807-21년에 중국에 머물렀던 그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사회가 중국의 변경 지역(сопредельный регион)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얻은 후에 중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티베트, 투르크스탄, 몽골리아 국가들이 중국과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고, 중국이 인도,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근접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맨 처음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은 사물의 질서이다. 앞서 언급된 국가들의 지리적 위치와 정치구조를 연구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묘사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궁정과 정치, 정부와 법률, 민중의 관습과 전통에 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중국에 대한 서술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sup>19)</sup>

17) И. Ф. Попова,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с. 13.

18) И. Ф. Попова,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с. 13.

중국의 변경사를 통해 중국을 파악한 비추린의 작업은 러시아제국에서 중앙아시아사 및 중국사에 대한 학문적, 체계적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지리적 정보에 대한 정확한 번역, 고대와 중세 아시아의 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등에 대한 최고의 연구로서, 그는 이미 1828년에 티베트와 몽골리아, 1829년에 준가리아와 동투르크에스탄에 대한 연구 등 수많은 저작을 남겼다. 더욱이 1848년에는 러시아제국의 학술원이 비추린에게 중앙아시아 역사를 집대성하는 작업을 맡겼고, 그 결과 1851년 3권으로 구성된 『고대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에 관한 정보 컬렉션』이 출간되었다.<sup>20)</sup>

이처럼, 중국의 역사문헌에 기초하여 비추린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사람들에 대한 광범한 정보를 집대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민족과 부족들에게까지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비추린의 연구는 러시아제국이 강력한 유라시아 국가로 발흥하던 시기에 빛을 보았다. 러시아제국은 16세기 후반 예르마크의 시베리아 원정 이후 지속적인 동진정책을 펼쳐 이미 17세기가 끝나기 전에 시베리아 식민화를 완료하고 극동 및 태평양에서 강한 흔적을 남기는 과정에서, 내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845년 8월 6일, 황제 칙령에 의해 ‘러시아지리학회’가 설립되었다.<sup>21)</sup> 이 학회의 과제는 첫째, 러시아와 관련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며, 둘째, 외국, 주로 러시아와의 국경지역, 즉 터키, 페르시아

19) И. Ф. Попова,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с. 13-14.

20) 이 저작은 그 전까지 서구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중국문헌 번역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서, 사마천의 『사기』 발췌본이 번역되었으며, 후한, 진, 남북조, 수, 당 등의 공식 역사기록들을 기초로 하였다. И. Ф. Попова,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с. 15.

21) 당시에 쟁쟁한 지리학자들은 대부분 이 학회에 참가했다. К. И. Арсеньев, Ф. П. Литке, И. Ф. Крузенштерн, К. М. Бэр, А. И. Левшин 등이 그러하다. 러시아지리학회는 1845년 첫째 말까지 144명의 회원을 확보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с. 10.

아, 중국 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sup>22)</sup> 한편, 1846년에는 ‘러시아고고학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로써 슬라브·러시아, 고전고대(그리스로마)·비잔틴, 그리고 서유럽 및 동유럽의 고고학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반되었다.<sup>23)</sup>

러시아지리학회의 설립과 함께 러시아의 폭넓은 독자층에서 미지의 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것은 물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탐사가 필요하고 지리를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들 가운데 골롭코프(П. В. Голубков)는 1848년에 칼 리테르의 저작 『아시아의 지리(Землеведение Азии)』(원제목은 *Die Erdkunde von Asien*) 출간과 아시아지도 간행을 위해 ‘러시아지리학회’에 2,350루블의 기금을 헌액하기도 하였다.<sup>24)</sup> 사실상 19세기 초에 중앙아시아 지도로 만드는 작업은 카를 리터(Carl Ritter)와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의 탐구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적 틀은 현장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결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고원 및 산맥의 크기가 과장되었고, 산맥의 위치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었다.<sup>25)</sup>

아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는 1850년 하니코프(Я. В. Ханьков), 볼로토프(А. П. Болотов)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중앙아시아의 북서쪽 부분에 대한 지도를 완성한데 이어, 1851년에 하니코프는 이식 쿨 호수지역에 대해 지도를 완성하였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역사지리학 연구에 기여를

22) И. Ф. Попова,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с. 15.

23) И. Ф. Попова,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с. 16.

24) 기부금 액수에 대해서는 문헌마다 차이가 있다. 이리나 포포바교수는 2,350루블로 쓰고 있다. И. Ф. Попова,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с. 16; 그런데 러시아 지리학회 문서고 자료를 인용해 나타니엘 나이트 교수는 15,000루블로 쓰고 있다. N. Knight. ‘Science, Empire, and Nationality: Ethnography in the Russian Geographical Society, 1845~1855,’ Jane Burbank, David L. Ransel (Eds.). *Imperial Russia: New Histories for the Empir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1998. p. 114. 그런데, 필자의 생각에 민족주의 성향의 골롭코프가 독일계 외국인들이 지배하는 학술원의 풍토를 바꾸고 러시아지리학회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15,000루블을 구두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아시아의 지리』 번역 및 지도제작에 지불된 실제 비용은 2,350루블이었다고 추정된다.

25) И. Ф. Попова,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с. 16.

한 사람은 중국학자 바실리 파블로비치 바실리에프(В. П. Васильев, 1818-1900)를 꼽을 수 있는데, 그의 출간저작의 1/4은 지리학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고대에 중앙아시아의 강들이 시르다리야와 같은 지류이며 하나의 체계에 있었다는 가설을 처음으로 생각해냈는데, 아쉽게도 그의 수많은 논문들은 출간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sup>26)</sup>

요컨대, 19세기 전반기에 러시아제국은 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해 파편적 지식에서 벗어나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토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818년 러시아제국 학술원 산하의 동방문헌 박물관, 1845년 러시아지리학회, 1846년 러시아고고학회의 설립은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하는 ‘과학적 탐사’를 위한 토대일 수 있었다.<sup>27)</sup>

다시 말해, 19세기에 들어서면 ‘과학적 탐사’라는 이름을 붙이되 국가가 전면에서 나섬으로써 러시아를 포함해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민족주의적 이해관계가 점점 더 두드러지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해야

26) 그 외에도 1845년에 그는 장안에서 중앙아시아로 여행을 떠난 현장법사의 19년간 여행기록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번역을 마쳤으나 불행히도 출간되지 못한 채 러시아학술원 문서고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분관에 개인파일에 보존되어 있다가, 나중에 프랑스의 중국학자 줄리앙(S. Julien, 1799-1873)이 현장법사의 저작을 번역하고 그에 기초해 러시아어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И. Ф. Попова,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с. 17.

27)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지리학회(РГО)로 사용한다. 이 기구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고, 국가관료 및 다양한 저명인사들의 후원을 받았다. 러시아지리학회(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1845-1850)의 명칭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황제에 의해 정관을 승인받은 후에는 제국러시아지리학회(Императорское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1850~1917), 혁명 직후 러시아지리학회(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1917~1925), 소연방 형성이후에는 국립지리학회(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1925~1938), 그 후 소련지리학회(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СССР, 또는 Всесоюзн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1938~1992), 소련해체 이후 러시아지리학회(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1992~1995), 현재는 전 러시아 사회기구 러시아지리학회(Всеросси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1995~현재)이다. 공식홈페이지 참조. <http://www.rgo.ru>

한다. ‘지도그리기’는 공간을 다루는 유럽중심의 또 다른 분류체계이며, 유럽 각국에 우후죽순 생겨난 지리학회는 그러한 분위기를 증명해준다. 프랑스는 1821년, 프로이센은 1828년, 영국은 1830년, 미국은 1852년 등 유사한 지리학회를 설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845년에 러시아지리학회의 설립은 보다 체계적인 탐사를 위한 경쟁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나타낸 것일 수 있었다.<sup>28)</sup>

## 2. 문화횡단의 텍스트로서 『천산으로의 여행』

앞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 표트르 세묘노프의 『천산으로의 여행』은 첫째, 니키타 비추린에서부터 바실리 바실리에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및 내륙아시아를 연구해온 러시아 역사지리학 연구전통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묘노프의 여행기는 한가로운 여행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개인여행이 아니었으며, 조직적인 지원을 받고 험한 오지를 찾아 떠난 탐험(экспедиция) 혹은 원정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 지점은 19세기 중엽을 살았던 한 범상치 않은 개인에 주목하면서도, 그가 경험한 ‘문화횡단’이 사실상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화’ 정책의 확대와 러시아중심의 분류체계를 강화하는 계기에 다름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표트르 세묘노프의 『천산으로의 여행』은 여행에서부터 출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지체됨으로써, 그 자체가 해석의 여지를 많이 담은 텍스트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총 3권 4책으로 구성된 표트르 세묘노프의 회고록은 그의 나이 80대에 들어서서 이루어졌다. 그는 그레먀츠키(Гремяч-ка) 영지와 라잔카 영지에서 외부의 방문을 끊고 조용히 글

28) N. Knight. Science, ‘Empire, and Nationality: Ethnography in the Russian Geographical Society, 1845-1855,’ Jane Burbank, David L. Ransel (Eds.). *Imperial Russia: New Histories for the Empir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1998, pp. 133~34.

쓰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1906년 제1권 『유년과 청년시절(Детство и юность)』을 마쳤으며,<sup>29)</sup> 그 후 3년 동안 제2권 『천산으로의 여행』집필에 몰두하였다. 표트르 세묘노프는 천산여행 당시의 일기에 기초해 글을 완성하였다.<sup>30)</sup> 이 유명한 여행에 대해서는 몇 차례 부분적인 내용이 소개되기는 했으나,<sup>31)</sup> 여행 전체에 대한 그림은 반세기 만에 나오게 된 것이다. 농노해방을 다룬 제3권은 그의 생전에, 그리고 유년과 청년시절을 다룬 제1권은 그의 사후에 출간되었으나, 천산으로의 여행을 다룬 제2권은 혁명, 내전 등 이후의 러시아의 복잡한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잊혀졌다.<sup>32)</sup> 표트르 세묘노프가문의 사람들도 역사의 격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가 1946년에 천산여행 90주년에 맞춰 제2권이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따라서 『천산으로의 여행』은 19세기 중엽, 20세기 초, 20세기 중엽 러시아사회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가 일정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분석텍스트로서 『천산으로의 여행』의 행간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지니는 복합적 의미를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글쓰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왔던 다른 수많은 회고록들의 전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자기시대의 기억을

29) 이즈음에 딸 올가(Ольга Семенова-Тян-Шанская, 1863~1906)가 사망했다. 인민주의 경향의 민속학자이자 화가였던 그녀는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직접 관찰하고 『이반의 생애(Жизнь Ивана)』를 써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오랫동안 파킨슨 병고에 시달리다가 4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30) 1909년 2월에 제2권을 끝낸 후에 그는 다시 1년 반에 걸쳐 제3권을 집필하였다. 제3권은 1911-13년에 『농노해방시대(Эпоха освобождения крестьян, 1857-1861)』라는 제목으로 자비로 출간하였다. 그런데 마침 농노해방 50주년과 시기가 맞아 즉시 출판사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의 사후(1915~1916년)에 재출간되었다.

31) 그의 여행에 관한 논문들 — 그것은 1856년과 1858년에 『러시아지리학회 소식(Вестники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에 실렸으며, 1867년에는 『러시아지리학회 일반지리 노트(Записки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о Общей географии)』에 글이 실렸다.

32) П. П. Семенов-Тян-Шанский, *Мемуары*, т. 1, т. 3~4, Петроград, 1915~1917.

놀라운 문학적 재능으로 표현해냈다는 특징이 있었다. 출간되었을 때 그의 저작은 역사가, 사회학자, 경제학자, 예술가, 과학자, 문학사가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그의 관심과 지식의 영역이 매우 놀라운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제르좌빈, 로모노소프에서부터 네크라소프, 쭈체프, 실러, 괴테, 코르네유, 셰익스피어 등을 이해했고, 푸쉬킨, 레르몬토프, 고골,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체홉, 부닌 등을 널리 읽었다. 당시에 러시아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던 많은 귀족들과 비교해 보면, 그는 러시아문학의 황금기와 은색시대를 살았으며, 자신의 뿌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sup>33)</sup>

확실히 특출한 개인으로서 표트르 세모노프는 러시아의 동식물학, 민족지학, 지리학, 통계학과 같은 학문적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가이며 행정 관료로서 경이로운 업적을 남겼으며, 지치지 않은 열정과 애국심으로 가득한 그의 생애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sup>34)</sup> 해마다 그의 탄생일과 천산여행에 맞춰 진행되는 갖가지 현양사업

33) С. И. Кукрак, «Мемуары» П. П. Семенова-Тян-Шанского-выдающееся явление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Для пользы Отечества: к 185-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 П. Семенова-Тян-Шанского, Рязань, 2012, с. 30.

34) 천산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1861년 농노해방령과 1860~70년대의 '대개혁'의 틀을 짜는 작업에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지리학회와 수장으로(1873-1914) 앞서 언급한 프르췌발스키, 포타닌 뿐만 아니라, 펠초프(М. В. Певцов), 로보롭스키(В. И. Роборовский), 코즐로프(П. К. Козлов), 보그다노비치(К. И. Богданович), 그룸-그르췌마일로(Г. Е. Грумм-Гржимайло), 오브루체프(В. А. Обручев), 미클루호-마크라야(Н. Н. Миклухо-Маклая), 쇼칼스키(Ю. М. Шокальский) 등 수많은 원정(遠程)을 위한 탐험대 조직에 직접 참여하였다. 천산 산맥의 빙하와 정상 봉우리, 쿠쿠노르(Кукунор) 호수에서 남쪽 산등성이, 몽골알타이산맥의 최정상, 키르기즈 알라타이, 카프카스산맥, 알라스크, 스발바르 쉬피츠베르겐(Шпицберген) 등 곳곳에 그의 이름이 붙여지는 영예를 차지한 것은 이러한 노고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그는 중앙통계위원회(Центральны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комитет(1864~1882))를 맡아 대규모 통계연구를 수행하면서 러시아제국의 영토를 자연환경 및 경제조건에 따라 12개의 오블라스치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는 20세기까지도 사용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토대작업으로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세모노프는 1897년 러시아제국 최초의 전국인구센서스(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를 조직하고 수행한 장본인이었다. 그 외에도 그는 70만

이나 학술회의는 현재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을 확인하도록 해준다. 더욱이 최근에는 러시아제국에 대한 노스텔지어와 함께 그의 중앙아시아 탐험과 여행기는 주로 혁혁한 학문적 영향력과 연결되기 마련이었고 거의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sup>35)</sup>

그렇지만, 크림전쟁(1853-1856)에서 참패를 겪은 러시아제국이 중앙아시아로 더욱 적극적으로 시선을 돌리면서,<sup>36)</sup> ‘그레이트 게임’으로 알려진

여 점에 이르는 곤충 컬렉션에서부터 광물 및 동식물의 컬렉션을 수집하였다.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1946년판의 도입부분에서 프라드킨(Н. Г. Фрадкин)의 해제(1-33쪽)를 정리 요약함.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칭송되는 장수하늘소의 학명(Callipogon relictus Semenov-Tian-Shansky)에 그의 성이 붙여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명한 동물학자 안드레이 세묘노프가 1898년에 발견했고 그의 이름을 따라서 학명이 붙여졌다. 그는 표트르 세묘노프의 아들이다.

- 35) 대표적인 저작만 몇 권 소개하면, 표트르 세묘노프의 천산여행 100주년을 기념한 출간작업 Н. И. Леонов, *Пётр Петрович Семё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К 100-летию первого путешествия в Тянь-Шань в 1856 и 1857 гг.)* М.: Географгиз, 1957; 탄생 150주년에 맞춘 작업 Я. Ф. Антошко, А. И. Соловьёв, *У истоков Якарта: К 15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 П. Семёнова-Тянь-Шанского*, М.: Мысль, 1977; И. В. Козлов, *Пётр Петрович Семё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М.: Просвещение, 1983; И. В. Козлов, А. В. Козлова, *Пётр Петрович Семёнов-Тянь-Шанский, 1827~1914*, М.: Наука, 1991; А. Н. Потапов, “Хозяин Белого флигеля,” *Московский журнал*, 2013, № 4; Ю. М. Шокальский, ‘П. П. Семё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Изв. РГО*. 1939. Т. 71. Вып. 4; Р. Л. Золотницкая, “Корни памяти к 170-летию Петра Петровича Семенова-Тянь-Шанског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 15 (3448), 1997; 천산여행 150주년 기념 학술회의 결과물 В. М. Плоских(ред), *По следам путешествия П. П. Семенова на Тянь-Шань*, Бишкек: Издательство КРСУ, 2007; 탄생 180주년에 맞춘 작업 *Научное наследие Петра Петровича Семенова-Тянь-Шанского и его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современной науки*, Липецк : ЛГПУ, 2007; 탄생 185주년에 맞춘 작업 *Для пользы Отечества: к 185-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 П. Семенова-Тянь-Шанского*, Рязань, 2012 외에 다수가 있다. 그 외에 최근까지의 연구논문 등은 다음 참조.

(<http://lounb.ru/lipmap/index.php/personalii/urozhentsy-lipetskogo-kraya/145-semenov-tyan-shanskij-p-p> 2017.03.05)

- 36) 대영제국과 러시아제국 간에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패권경쟁으로 알려진,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의 조건은 더 이전에 준비되고 있었다. Seymour Becker,

패권적 갈등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표트르 세묘노프의 여행은 특히 ‘제국의 시선’에 대한 메리 루이스 프렛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할 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그녀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갔던 서유럽의 여행가들의 여행기들을 탐구함으로써, 여행의 내러티브와 제국주의 담론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적한 바 있다. 미셸 푸코와 에드워드 사이드의 중요한 통찰력에 기초하여, 그녀는 여행기가 피 통치 세계의 공간과 사람들에게 유럽의 권력의식 또는 유럽적 통제를 실어 날랐다고 주장했다.<sup>37)</sup> 프렛은 수많은 유럽여행가들의 묘사, 다시 말해 여행기가 식민화 및 피식민화 세계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나타냈는지를 분석하여, 과학적 여행 혹은 과학적 탐사가 제국주의적 노력의 훨씬 명확한 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종종 자연의 컬렉션을 풍경묘사 및 민족지학에 나타난 변화와 통합시키며,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과학탐사 및 보고서는 하나의 실용적인 여행정보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9세기 중엽 이후 러시아지리학회가 만들어낸 중앙아시아 관련 보고서는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러시아지리학회 연구자 스콧 베일리는 유라시아로 떠난 러시아지리학회의 탐사보고서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비록 학자-여행가들의 연구에 대한 사명감과 그 지역으로 나아갔던 짜르정부의 군사적 의도는 거리가 있을 수 있었으나, 결과에서는 같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지리학회의 탐험결과는 결국 중앙아시아 지역획득을 위한 토대를 놓은 것이었고, 전략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헨리 스탠리 등은 대영제국이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었고, 바로 그러한 예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인들도 아시아 및 중앙아

"The 'great game': The history of an evocative phrase." *Asian Affairs* 43. 1, 2012, pp. 61~80.

37)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시아에서 유사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주장이다.<sup>38)</sup>

더욱이 러시아지리학회의 경우는 그 조직 구성상 학술원 산하가 아니라 내무부 산하에 포함됨으로써 출발에서부터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러시아지리학회의 내부 조직도를 보면 중요한 두 기둥은 민족지학부와 통계부인데, 그 조직에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적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종 통계작업, 인구조사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19세기 중엽에는 전문적인 식자층뿐만 아니라 짜르정부의 계몽관료들도 제국의 중요한 축인 아시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특히 이 시기에 외무부 아시아국, 공공계몽부의 식자층위원회, 전쟁부가 동양연구의 중심에 있었다. 흥미롭게도 1855년 8월 27일 정오에 영국연합군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 대해 최종 공격을 단행했던 바로 그 즈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에 동양어학부가 공식적으로 신설되었다.<sup>39)</sup>

특히 크림전쟁의 패배 이후 한편에서는 반 유럽적 정서가 자리 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있는 러시아 고유의 민족적, 제국적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19세기 중엽 이후 제국의 중심뿐만 아니라 변경지역에 다양한 종류의 동양학 연구의 지

38) Scott C. Matsushita Bailey, *Travel, Science, and Empire: The Russian Geographical society's Expeditions to Central Eurasia, 1845-1905*, University of Hawaii, 2006. 서문 참조.

39)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동양어학부 신설과 함께 근동, 내륙아시아, 동아시아, 카프카스, 헤브루어 등 5개 과에 이어 산스크리트어, 일본어, 한국어, 티베트어 과도 신설되었다. 처음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근동과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의 대부분이 취직하게 되는 외무성에서 근동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860~70년대에 러시아제국이 투르크스탄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일련의 전쟁을 단행하자 수많은 학생들이 아랍어, 페르시아어, 튀르크어, 타타르어로 몰려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20세기 전환기에 러시아제국이 동아시아로 팽창하게 되자 수많은 학생들이 중국어와 만주어에 등록하였던 것은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 기계형, 「러시아제국의 투르크스탄 정복과 권력의 시각적 재현 - 화가 바실리 베레샤긴의 '투르크스탄 회화」, 『슬라브학보』, 제 27권 4호, 2012, 25~35쪽 참조.

부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sup>40)</sup> 동방언어를 잘 알았던 학자들이 관료로서 국가봉직에 관련되었고, 군사 및 행정가들은 과학연구에 몰두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지식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Ⅲ. 과학적 탐사와 민족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 1. 『천산으로의 여행』과 중앙아시아 인식의 확대

표트르 세묘노프는 1827년 1월 14일에 라잔 주의 우르소보 마을 근처의 라잔카에서 태어났다.<sup>41)</sup> 조부는 수보로프장군의 알프스원정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부친은 나폴레옹전쟁시기에 보로디노 전투에 참여해 공훈을 세운 귀족가문에서 출생한 표트르 세묘노프는 12살에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은 병약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다. 1845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기병사관학교를 마치고,<sup>42)</sup> 1848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40) 동양학은 1859년에 설립된 ‘상트페테르부르크 제국고고학위원회’가 수행한 작업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였다. 그 외에 많은 협회들이 생겨남. 즉, 모스크바 소재의 <제국 자연사, 인류학, 민족지학 애호가회 (Императорское общество любителей естествознания, антроп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ОЛЕАЭ) (1863-1931)>, <모스크바 고고학회(1864)>, <카잔 고고학, 역사, 민족지학 학회(1877년)> 등. Vera Tolz, *Russia's Own Orient: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Oriental Studies in the Late Imperial and Early Soviet Perio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7-10; 한편, 다양한 식자층사회에 대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 А. М. Милкова,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Российски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ах (конец XVII в. -1917 г.)*, СПб.: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1994.

41) 라잔 주의 우르소보(Урусово) 마을 근처에 위치한 영지 라잔카(Рязан-ка)는 그의 집안 대대로 내려온 영지로서, 표트르 세묘노프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유산으로 받은 페트로브카 영지, 그 외에 1860년에 구입하고 새로운 터전으로 삼은 라잔 주의 그레먀츠키 영지의 저택은 오늘날 표트르 세묘노프에 대한 여러 기억들을 고스란히 담은 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Е. И. Остроухова, А. Д. Сурина, *Для пользы отечества*, с. 3~4.

42) 상트페테르부르크 기병사관학교(Школа подпрапорщиков и кавалерийских

물리수학부 자연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식물연구와 지리학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이었다.<sup>43)</sup>

지리학에 남다른 관심을 지닌 그는 1849년 2월에 러시아지리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849~1851년에 그는 유럽러시아 지역의 오카 강과 돈강 주변에 서식하는 식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후 ‘유럽러시아 식물의 지리적 분포 및 돈 강의 식물군’이라는 제목의 석사논문을 썼다. 주목받는 연구자로서, 이 시기에 가장 획기적인 일은 바로 러시아지리학회가 그에게 칼 리테르의 저작 『아시아의 지리』번역을 의뢰했다는 점이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에 아내를 결핵으로 잃은 그는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제의를 적극적으로 수락하고 유럽으로 떠났다. 1853~1855년에 베를린대학에서 강의를 들었고,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지리학, 지질학, 경제학 등을 배웠다. 유럽에서 돌아온 포트르 세노노프는 곧바로 1856-57년에 천산(天山, Тянь-Шань)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다.<sup>44)</sup>

19세기 중엽에 천산은 성장하는 제국인 대영제국과 러시아제국 사이에 있었다. 영국의 여행가들은 남쪽의 인도에서부터 떠나 이미 망기슐락(Мангышлак)에까지 도착했다. 그와 동시에 영국인들은 부하라, 히바, 코칸트를 확고히 하려고 시도하였다.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쪽에서부터 투르크메스탄으로 들어갔다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방향을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1833년 오렌부르크 군단 지휘자로 임명을 받은 페롭스키(В. А. Перовский)는 1839-40년 겨울 히바로 원정을 떠났다가 실패하였다.<sup>45)</sup> 1851년 오렌부르크

---

юнkerов в Петербурге)는 귀족자제들을 위한 중등군사학교로서 알렉산드르 1세의 칙령에 의해 1823년에 설립되었다.

43) 1819년에 설립된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은 물리수학대, 역사언어학대, 철학법학대 3개의 학부대학으로 시작하였다. 1820년 물리수학대는 물리수학부와 자연과학부로 나뉘었다.

44)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 Шань*, с. 13~14.

45) К. К. Абаз, *Завоевание Туркестана*, М: Кучково поле, 2008, с. 23~ 41. 이 책은 원래 190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판되었다. Константин К. Абаз

크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는 다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코간트 원정(1853)에 떠났다가, 결국 아크 메체티(Ак-Мечеть)를 점령했다. 한편, 아랄 해 함대의 러시아 선원들이 시르다리아를 항해하여 1854년에는 베르노예(Верное) 기지를 세웠다. 이처럼 영국은 인도에서 세력을 확고히 하면서 북진하고 있었고, 러시아도 중앙아시아로 눈을 돌리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크림전쟁에서 대패하였다.

표트르 세묘노프가 천산여행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는 당시에 베를린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지리학의 두 권위자 알렉산더 훔볼트와 카를 리터와의 만남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책을 번역한 표트르 세묘노프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던 카를 리터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아시아의 지리적 정보에 대해서” 표트르 세묘노프가 자신보다 훨씬 잘 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것은 세묘노프를 고무시킨 것으로 보인다.<sup>46)</sup> 또한 1853-1855년에 세묘노프는 3명의 독일친구들과 강의를 들었는데, 그들은 아돌프와 게르만 슬라긴베이트 형제(Adolf & German Shlaginveit), 그리고 나중에 실크로드를 명명한 유명한 지리학자 페르디난트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이었다. 그 당시 세묘노프는 독일도 남쪽에서부터 천산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들었고, 그 자신도 천산에 가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sup>47)</sup>

프라드킨(Н. Г. Фрадкин)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표트르 세묘노프는 1852년부터 러시아지리학회 의뢰에 받아 여러 권으로 된 카를 리터의 『아시아의 지리』를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를 리터와 천산을 비롯해 아시아의 지질과 지형에 대해 자세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천산 여행에 대한 결심을 굳힐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

(1841-1905), *Завоевание Туркестана : рассказы из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очерки природы, быта и нравов туземцев в общедоступном изложении*, СПб., 1902.

46)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Мемуары*, т. I, с. 253.

47)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 Шань*, с. 35.

다. 실제로 그는 1856년에 카를 리터의 책 1권 번역과 편집을 완료하고 대외적으로는 제2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5월 6일 천산으로의 여행에 착수하였다. 천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표트르 세묘노프는 『아시아의 지리』 1권 번역문 서문에서 “우리의 학자들이 모국어의 형태로 학문의 내용을 담아내지 않는 한, 비록 지식과 이상을 추구하더라도 자신의 동포(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어쩌면 그들은 이집트의 제사장 신분으로서 조국의 발전에는 타자로 남을 것이다(они останутся чуждою отечественному развитию)”라고 썼다.<sup>48)</sup> 이 문장은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동포에 대한 기여와 봉사라는 지식인의 사명에 대한 표트르 세묘노프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트르 세묘노프의 천산 여행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856년 5월 초 원정을 떠나 서시베리아, 알타이를 거쳐 이미 6월에 바르나울에 도착했으며, 세미레친스코예를 거쳐 알라타우 그리고 이식쿨 호수를 여행하였다. 11월에 바르나울로 되돌아간 그는 겨울 내내 수집한 다양한 동식물 표본을 정리하고 러시아지리학회에 보낼 여행 보고서를 준비하였다. 1857년에 그는 다시 원정대를 꾸렸는데, 이번에는 톱스크 김나지움의 미술교사 코샤로프(Кошаров)를 대동하고 베르노예에서 떠나 천산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는 이식쿨 호수 남쪽으로 이동해서 올라갔으며, 나린 강을 건너고 시르-다리야 강의 원류에 도달하였는데, 원정대는 계속 이동하여 두 번째로 천산에 오르고 최고봉인 칸 탕그리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알라타우를 연구하고 준가르 알라타우와 알라쿨 호수에 도달했으며, 천산산맥의 다양한 봉우리들을 올랐다. 천산산맥을 넘은 최초의 유럽인으로서, 그는 산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과학적 발견을 하였다. 특히 카를 리터의 주장과 다르게 천산

48) П. П. Семенов. Предисловие переводчика. Землеведение Азии К. Риттера, т. I, СПб., 1856, с. 3.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 Шань, 프라드킨의 해제 с. 9에서 재인용

은 활화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칸 탕그리 북쪽 비탈 쪽에 펼쳐진 거대한 빙하를 찾았고, 산악의 위도와 고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계산에 기초한 표를 만들었다. 또한 2년에 걸친 천산여행에서 그는 광범위한 광물, 식물, 곤충 컬렉션을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한 다양한 민족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런 점에서 프라드킨은 그의 여행이 탐사라기보다는 학술연구의 성격이 짙었다고 쓰고 있다.<sup>49)</sup> 예컨대, 여행에서 돌아온 표트르 세묘노프는 러시아지리학회에 자신이 만든 지도와 그림을 게시할 것을 제안했고, 1858년에는 자신의 여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러시아지리학회에서 일부를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지리학회 연간보고서에 준가르 알라타우 등을 비롯한 고원지역의 탐험경로, 나린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독일의 지리학회 보고서(Petermanns Mittheilungen)에 여행의 개요, 준가르 알라타우, 알라타우 횡단, 그리고 천산과 이식쿨호수에 대해 글을 남겼다. 아울러, 1857년의 시르다리아 강 상류 여행에 대해 영국의 왕립 지리학회에 저널에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sup>50)</sup>

어쩌면 프라드킨의 주장처럼 표트르 세묘노프의 천산여행은 학술연구의 성격이 짙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링컨(Bruce Lincoln)의 연구에서처럼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자유주의적 계몽적 지식인이자 실천할 줄 아는 관료로 성장한 비범한 지리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sup>51)</sup>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그는 1873년부터 1914년 사망하기 전까지 41년 동안 러시아지리학회의 부회장이자 실질적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그가 소련시대에도 계속해서

49)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с. 23.

50) P. P. Semenov and John Michell, "First Ascent of the Tian-Shan or Celestial Mountains, and Visit to the Upper Course of the Jaxartes or Syr-Daria, in 1857,"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31 (1861), pp. 356 ~366.

51) W. Bruce Lincoln, *Petr Petrovich Semenov-Tian-Shanskii: the Life of a Russian Geographer*, Oriental Research Partners, 1980).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되었다. 1939년 쇼칼스키는 소련에서 지리학회가 유용하고 중요한 학문기구를 대표하게 된 것은 많은 점에서 세묘노프 짠 샨스키 덕분이라고 쓰고 있으며,<sup>52)</sup> 일린스키는 표트르 세묘노프가 크로포트킨, 프르췌발스키, 포타닌, 로보롭스키, 펠초프, 코즐로프, 그룸-그드르췌마일로 등의 탐사를 고무시킴으로써 소련이 세계지리학회에서 우수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53)</sup> 이것은 제정러시아시대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지리학회가 소련지리학회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표트르 세묘노프라는 인물이 맡은 역할의 막중함을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라 할 수 있다.

물론, 『천산으로의 여행』에는 분명 그러한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1856년 첫해에 천산여행에서 발견한 단풍나무 등 70여종의 식물 컬렉션을 수집했고 겨울 내내 바르나울에서 보고서를 쓰고 분류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 페트라췌프스키서클에 연루되어 시베리아에서 유형을 보낸 후 바르나울에서 군복무를 하던 도스토옙스키와 친분을 다지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여준다.<sup>54)</sup> 그는 또한 1857년 여름 다시 천산으로 올라가 고도의 만년설에서 자라는, 당시로서는 알려지지 않은 수십 종의 식물표본을 수집하기도 했다.

여행기 안에서 이러한 내러티브는 마치 18세기 스웨덴 식물학자 칼 린네의 『자연의 체계』(1735)나 『식물의 종』(1753)으로 대표되는 식물분류학의 틀에 따라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로 떠나 유럽중심의 박물관학 및 유럽중심의 자연의 체계화를 주창한 탐험가들의 흥미진진하면서 소박

52) Ю. М. Шокальский, ‘П.П. Семёнов-Тян-Шанский,’ В. Л. Комаров (ред), *Извес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 71. Вып. 4. Москва, 1939. с. 482.

53) В. Л. Комаров, ред. *Извес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 71. Вып. 4. Москва, 1939. с. 482.

54) 표트르 세묘노프는 바르나울에서 머무를 때 자주 도스토옙스키를 방문하고 친분을 가졌다. П. П. Семенов-Тян-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 Шань*, 2장과 3장에서 바르나울 부분 참조.

한 이야기들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가 러시아지리학회를 포함해 독일 지리학회, 영국왕립지리학회 등에 보낸 보고서에는 천산과 시르-다리야 강, 이식쿨 호수의 지형적, 지질학적 특징뿐만 아니라 그가 새롭게 발견한 식물과 곤충들에 대한 설명이 상당 분량을 포함한다. 더구나 그것은 마치 유럽 해양팽창의 시기에 식민지에서 동식물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존하고 그림으로 묘사한 후 격자에 조심스럽게 담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 연구해서 책으로 펴내고, 표본이 죽은 후에는 유럽 호사가들의 개인박물관 컬렉션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살아남은 경우는 식물원에 옮겨졌던<sup>55)</sup> 모습과 오버랩 된다. 실제로 곤충수집 작업을 즐겨했던 그는 천산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70만여 점의 곤충표본을 모으기도 했다.

더구나 천산에서 만난 소수민족들에 대한 그의 묘사들은 매우 상세하며, 민족지학 및 인류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심층적 필드워크에 기반한 연구의 시작일 수 있었다.

“그는 요란한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높이 솟은 모자를 쓰고, 손에는 탬버린을 들고 있었다. 시베리아인 들은 그를 두아나, 즉 예언자 또는 샤먼이라고 부르는데, …깊게 뿌리내리지 않은 이슬람의 망토아래서 **샤먼 니즘 유물의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는 내가 황제의 존엄한 자(улькунпоре)가 될 것이며, 100개의 등급(또는 훈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sup>56)</sup> (강조-필자)

흥미로운 것은 인용문에서 보듯이, 러시아정교도인 표트르 세묘노프에게 그들 토착주민들의 종교는 샤먼의 현란하고 예사롭지 않은 복장으로

55)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Routledge, 2007, pp. 28~29. 메리 루이스 프렛 저, 『제국의 시선』, 김남혁 역, 현실문화, 2015, 68~69쪽.

56)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 Шань*, с. 182~183.

표현되는, 그리하여 “샤머니즘유물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의식으로 다가온다. 동시에 그들 튀르크 부족은 “이슬람의 망토” 아래에 있지만, 이슬람 종교가 “깊게 뿌리내리지는 않았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세묘노프는 당시로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중앙유라시아와 중국의 교차로에 흩어져있던 산악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던 것이며, 천산산맥의 독특한 전경과 천혜의 자연, 토착주민들의 외모 및 생활과 관습, 그들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 등에 대한 여행기록과 그 속에 포함된 희귀한 그림과 동식물 표본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sup>57)</sup> 하지만, 유럽의 팽창 이후, 유럽중심의 질서, 분류,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획이 결과적으로 제국주의적 정복과 시장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세묘노프의 여행기는 다르게 읽혀질 수 있다. 특히, 이종의 문화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서로 맞붙어 싸우는, 예컨대 메리 프렛의 설명을 대입하면 ‘접촉지대(contact zone)’에 대한 세묘노프의 시선에서 다른 모습도 확인하게 된다.<sup>58)</sup>

## 2. 20세기 초 표트르 세묘노프의 『천산』

앞서 지적했듯이, 표트르 세묘노프는 『천산으로의 여행』을 1909년에 탈고하였다. 흥미롭게도 여행기를 읽다 보면, 행간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갈수록 확대되었던 제국주의 열강사이의 경쟁, 산악 소수민족들 사이의 분쟁 및 산악 곳곳에 지

57) 표트르 세묘노프는 천산산맥의 주요한 장소에 화가 쿠샤로프를 대동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정부권력과 예술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계형, 「러시아제국의 투르크스탄 정복과 권력의 시각적 재현 - 화가 바실리 베레샤긴의 ‘투르크스탄 회화’」, 25~56쪽 참조.

58)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p. 43, p. 48, p. 52, pp. 134-135.

은 러시아제국 카자키 부대에 대한 소수민족들의 저항, 천산으로의 여행이 철저히 이 지역 군부대의 확고한 지원 속에서 지속될 수 있었던 사실 등이 그러하다. 예컨대, 여행기 첫 시작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856년 봄……나는 카를 리터의 ‘아시아 지리’ 제1권 번역의 추가 작업 마무리에 애를 쓰는 동안……중국학연구자 바실리 바실리예프 교수를 만나 매우 가까이 지냈다……카를 리터의 아시아의 천산 및 서부시베리아와 관련된 번역은 아직 광범위하게 추가 작업이 필요했다. 나는 중앙아시아로의 여행이라는 나 자신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것을 구실로 이용했다.”<sup>59)</sup>

표트르 세묘노프가 이처럼 ‘구실’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중앙아시아로의 여행이 영국 및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의 불필요한 오해 또는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러나 천산으로 가려는 나의 바람을 첫 번째 계획이라고 내세우는 것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가려는 나의 강한 결심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 만으로도 큰 실수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은 외부 쪽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러시아 국경 너머에 있는 국가들의 의심 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독일이 이미 전 세계로 눈이 열려 있었고, 인도를 통한 중앙아시아 탐험대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외교적 위험성 때문이라도, 나는 러시아지리학회에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카를 리터의 ‘아시아 지리’ 제2권의 추가 작업을 위해 그 책에 있는 지역 즉, 알타이, 키르기스의 스텝지역 등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여행경비는 내 자신이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학회로부터 도덕적 지원……그리고 그 밖의 도구 및 일반적으로 탐험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 1,000루블의 보조금을 공개목록의 형태로 요청했다. 미하일 무라비요프(М. Муравьёв)는 나의 제안에 크게 공감하고 나의 여행에 대해 가능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으며, 지리학회 사무국에서 나는 물리지리학과와 오제르스키(А. Д. Озерский) 회장과 평의회 의원들의 지원을 받았다.”<sup>60)</sup>

59)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с. 51.

한편, 그는 바르나올에 도착해 서시베리아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가스포르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는데, 특히 그를 통해 지역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군부대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제국 행정의 실수 및 토착 원주민과의 불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키르기스인들이 거주하는 이곳은 ……불화와 적대감으로 슬픈 결과가 있어왔다…….19세기 전반기의 키르기스 술탄 케네사르 카시모프의 끊임없는 반란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들은 수십 년간 러시아의 규정과 싸웠다…….가스포르트는 키르기스 인민들과 친하려고 했고, 일관된 정책을 정하려 했으며, 러시아는 유목민인 키르기스인들의 행정을 수립해야 했다. 놀랍게도 그는 전임자와 이웃들이 매우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곧장 이해했다. 즉, 자신의 샤머니즘 신앙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무슬림, 그리고 무함마드의 가르침이 아직 적게 스며든 키르기스인에게 카잔출신의 타타르인 물라를 제공하면서 무력으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개척했던 것이다.”<sup>61)</sup>

앞의 인용문은 1860년대 중엽에 투르케스탄을 군사적으로 병합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제국이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 요새를 확충하고 러시아인의 식민을 늘리는 등 철저히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트르 세묘노프는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는 “카자키와 농민가족들의 진짜 식민은 1857년 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설명하면서, 이 지역에서 짜르정부가 러시아인 식민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왔음을 지적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표트르 세묘노프가 군행정관과의 대화에서 끝까지 자신이 천산에 온 진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지리학회가 깊은 공감을 하며, 나 또한……. 세미레치에 변경에서의 식민운동에 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러시아지리학회는 나에게 동식물군뿐만 아니라 식민화의 성공에 대해 연구하도록 위임했다”고 밝혔

60)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с. 52.

61)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с. 62.

다는 점이다.<sup>62)</sup> 이것은 당시에 중앙아시아로의 여행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시선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한 세심한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역의 행정 및 군대를 책임지고 있던 가스포르트는 표트르 세묘노프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바램은 중앙아시아에서 계몽의 담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며.....러시아를 위해 더 많이 이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다.<sup>63)</sup> 이러한 대답은 당시에 러시아제국의 변경에서 짜르정부의 관리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들 자신은 “계몽의 담지자”로서 철저히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천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근을 지키는 카자키 수비대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실제로 표트르 세묘노프는 천산 등반을 위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더욱이 그의 여행기에서는 러시아제국의 지배력이 산간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묘사되는데, 우리는 1864년 사르칸트와 부하라 등에 대한 군사정복에 앞서 러시아인들의 마음 속에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도 그리기’가 자리잡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한편, 그는 글의 중간에 자신이 살던 당대의 이야기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러시아농노해방 이후 35년이 지나 1897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에 처음 온 서유럽의.....학자들은 우랄지역을 방문해 우리 농민들의 아름다움, 독창적인 지혜, 그리고 발전에 감탄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노예와 굴욕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바트스크와 페름 변두리의 농민들이.....동쪽을 열망하고 자유롭게 아시아의 땅으로까지 식민을 하였던 강하고 건강한 슬라브 부족의 직계 후손이라고 느껴졌다.”<sup>64)</sup> 이러한 지적들은 러시아인들의 아시아지역으로의 이주를 정당화하는 논

62)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с. 64.

63)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с. 65.

64)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с. 53.

리의 연장선에 있으며, 19세기 중엽에는 아직 명확한 모습을 띄지 않았던 점을 염두에 두면 『천산으로의 여행』은 러시아인들의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키르기스부족들 간에 교전이 자주 일어났다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군의 규모에 대한 마법의 소문”이 일어나 러시아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대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857년 두 번째 천산 등반 과정을 보면, 그 원정대의 규모는 대부분 카자키대원을 포함해 거의 5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다. 포트르 세모노프는 다음과 같이 쓴다. “나의 팀은 49명의 카자키로 구성되었다……내 팀에는 12명의 카라키르기스인, 우리에게는 낙타의 지도자, 나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화가 코샤로프가 있다. 완벽하게 키르기스어를 마스터한 카자키가 통역을 해준다……우리는 카라키르기스인들의 좋은 말 63마리를 제외하고 12마리의 낙타가 있다.”<sup>65)</sup>

사실상 이러한 규모의 움직임에서는 거의 군사작전 같은 느낌마저 받게 된다. 물론, 곳곳에서 키르기스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수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지만, 러시아의 변경에서 지속적으로 식민을 강화하고 군사요새를 확대하는 러시아제국의 모습은 매우 적극적인 ‘아시아 그리기’에 이어 식민지를 확대하기 위한 제국의 통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제국은 일찍부터 외부세계로 나갔으며 러시아인들의 여행기들이 출간되었다. 데이비드 슈펠펜닌크 반 데어 오이(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는 러시아의 지리 그 자체가 처음부터 동방과 더 밀접하게 해주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66)</sup> 낸시 콜만(Nancy

65)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с. 98.

66)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 “The imperial root of Soviet Orientalology,” in Michael Kemper, Stephan Conermann(eds.), *The Heritage of Soviet Oriental Studies*, p. 29; \_\_\_\_\_, *Russian Orientalism. Asia in the Russian Mind from Peter the*

S. Kollman)이 잘 보여주듯이, 모스크바공국의 이반 4세 시기에 팽창에서 나타난 폭력적 양상,<sup>67)</sup> 몽골세력을 쫓아내면서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과정,<sup>68)</sup> 그리고 시베리아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해나갔던 시기에 러시아인들의 지도그리기가 나타났다.<sup>69)</sup> 하지만, 그도 잘 지적하고 있는데, 적어도 19세기에 이르기 전까지 지도그리기에서는 러시아적 정체성을 염두에 두는 그러한 민족적, 인종적 분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짜르가계의 많은 가문들은 타타르 혈통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예컨대 유스포프(Юспов), 쿠라킨(Куракин), 다슈코프(Дашков), 코추베이(Кочубей), 우샤코프(Ушаков), 카람진(Карамзин) 등의 가문이 그러했다.<sup>70)</sup>

그러나 러시아지리학회 설립이후, 19세기 후반으로 가면 나이트(Nathaniel Knight)가 주장하듯이 민족지학은 당장에 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과학연구에 대한 많은 지원이 나타났다. 슬라브적인 것과 인민(народ)의 본질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가 서유럽 라이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담론을 낳았고, 따라서 또한 동식물 표본조사에서부터 자연풍광에 대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러시아제국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민족지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sup>71)</sup>

---

*Great to the Emigr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0.

- 67) Nancy S. Kollman, "Pilgrimage, Procession and Symbolic Space in Sixteenth-Century Russian Politics", eds, Michael S. Flier and Daniel Rowland, *Medieval Russian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참조.
- 68) Valerie Kivelson, *Cartographies of Tsardom: the Land and its Meanings in Seventeenth-Century Rus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참조.
- 69) Yuri Slezkine, *Artic Mirrors : Russia and the Small Peoples of the North*,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70)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 "The imperial root of Soviet Orientology," p. 29.
- 71) 러시아지리학회와 러시아제국의 계몽주의적 엘리트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Nathaniel Knight, "Was the Intelligentsia Part of the Nation? Visions of Society in Post-Emancipation Russia," *Kritika: Explorations in Eurasian History*, 7(4), September 2006, pp. 733~758; \_\_\_\_\_, "Science, Empire and Nationality:

특히 과학연구에 대한 지원의 대상이 동방, 즉 아시아로 옮겨갔다는 점이 중요하다. 1856년에 크림전쟁에서 러시아가 대패하자 러시아의 집단적 관심은 제국의 남서부지역 변경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야 할 것이다. 남서부 지역으로의 팽창은 좌절되었지만, 중앙아시아지역은 크림전쟁의 뼈아픈 패배에 대한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바신(Сергей Н. Абашин)은 크림전쟁 패배 이후 러시아인들이 승리와 영광에 대한 열망, 그리고 포상 받고 싶은 욕구, 소진되지 않은 에너지의 출구를 투르케스탄에서 찾았다고 지적한다.<sup>72)</sup> 처음에는 신문의 한 면에 이 지역으로 가는 방법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었다면, 곧 이어 공식적인 출판물들이 동방(Восток) 팽창의 정당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그 출발점에 바로 러시아지리학회(지리학회)가 있었다.

#### IV. 글을 나가며

포르트르 세묘노프는 1856-57년의 탐사를 통해, 당시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교차로의 산악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여행기에서 전하였다. 천산산맥 부근의 독특한 자연, 거주민들의 외모, 생활과 관습, 놀라운 토착 원주민들과의 만남과 아울러 희귀한 그림과 사진들을 포함한 그의 책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앙아시아에 탐험대를 보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했다. 프르쥬발스키, 초칸 발리하노프, 포타닌, 크로포트킨, 코마로프 등 수많은 학자-여행가들에 의해 수행된 다양한 탐험을 뒤에서 추동했던 사

---

Ethnography in the Russian Geographical Society, 1845~ 1855,” in Jane Burbank and David Ransel (eds.), *Imperial Russia: New Histories for the Empire*, Indiana University Press, September 1998, pp. 108~41.

72)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Абашин и другие,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8, с. 321~322.

람들 가운데 주축은 바로 그였다.

표트르 세묘노프의 『천산으로의 여행』은 집필, 출간 등의 시간적 지체로 인해 19세기 중엽과 20세기 초 러시아제국의 상황이 오버랩 되어 나타난다. 한편으로 보면, 『천산으로의 여행』은 그가 “소중하게 간직해 온 꿈”으로서, 그의 여행은 러시아제국 국경 밖의 중앙아시아로의 여행이었다. 그의 목적은 이 지역에 대한 동식물표본수집 등 학문적인 것이었으나, 다른 타자를 만나며 제국의 계서제적 우위를 전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여행기의 언어는 그가 체득한 유럽학문의 강한 표현이었고, 그것을 러시아의 독자들에게 옮겨다 준 것이었다. 그의 여행기는 그가 채집한 식물 표본에 관한 긴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또한 그러한 연구대상에 유럽식 학명을 붙인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다.<sup>73)</sup>

다른 한편으로 『천산으로의 여행』은 중앙아시아, 아시아, 그리고 연해 주로 러시아 제국 팽창의 분수령이 되어 주었다. 표트르 세묘노프의 중앙아시아로의 여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향했다. 우리는 그것을 순수한 여행이라고 이름붙이기 어렵다. 표트르 세묘노프 자신은 중앙아시아로의 팽창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여행기 곳곳에서 그러한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모리슨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에는 여러 명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는데, 카프카스에서의 전쟁이 종결되어 다른 국경 지역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고, 동쪽으로 계속 가야한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sup>74)</sup>

결론적으로 보면, 러시아 대중과 식자층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의식이

73)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장수하늘소의 학명은 “Callipogon relictus”로서 그 옆에는 학명을 붙인 그의 이름(세묘노프 짠-산스키)이 따라다닌다. 예컨대, 여행기의 한 대목에서는 “6월 19일, 나의 여행의 가장 성공적인 날들의 하나이다…완벽한 탐구와 함께…나는 6개의 완전히 새로운 식물 종을 발견할 수 있었다. П. П.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 Шань, с. 125~126.

74) A. S. Morrison, *Russian Rule in Samarkand 1868-1910*, Oxford, 2008, 특히 “Russia’s Aims in Turkestan,” pp. 30~36.

자리 잡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투르케스탄 정복은 제국의 남쪽 국경을 방어하는 수단”이자, “동방에서 영국의 팽창에 맞서는 대응책”이라는 견해, 아울러 훨씬 더 원칙적으로는 러시아의 정복이 “토착민들에게 재앙(бедствие)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통치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종족들에게 구원(спасение)의 유일한 길을 열어준다”는 관념이 식자층 사회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러 다양한 서적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제국의 중심에서 중앙아시아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발달이 되지 않았다”는 확고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이제 더 발전된 유럽국가(즉, 러시아제국)에 의해 “정복당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sup>75)</sup>

---

75) Г. Лежан, “Русские в Средней Азии,” *Записки для чтения*, СПб. 1867, No 10/11, С. 198;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Абашин и другие,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 319 재인용.

•

<자료>

- Бичурин, Н. Я. *Затиски о Монголии, сочинённые монахом Иакинфом. С приложением карты Монголии и разных костюмов.* Т. 1~2 (СПб. 1828).
- Пржевальский, Н. М. *Путешествия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Москва: Эксмо, 2010.
- Семенов, П. П. *Предисловие переводчика. Землеведение Азии К. Риттера,* т. I, СПб. 1856.
- Семенов-Тянь-Шанский, П. П. *Мемуары,* т. 1~4, П. 1915—1917 (т. 2, *Путешествие в Тянь-Шань,* Москва: ОГИЗ, 1946.
- Семенов, Л. С. *Путешествие Афанасия Никитина/Отв. ред. Р. Г. Скрынников.* М.: Наука, 1980.
- Потанина, А. В. Потанин, Г. Н. *Сибирь, Монголия, Китай, Тибет. Путешествия длиною в жизнь.* Эксмо: Москва, 2014.
- Этнографическая выставка 1867 года Общества любителей естествознания, антроп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стоящего при Имп. Москов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Москва: Тип. М.Н. Лаврова и К°, 1878.

<연구논저>

- 기계형, 「러시아제국의 투르케스탄 정복과 권력의 시각적 재현 - 화가 바실리 베레샤긴의 ‘투르케스탄 회화’」, 『슬라브학보』 제 27권 4호, 2012, pp. 25~56.
- 기계형, 「19세기 후반 타슈켄트 도시공간의 구조와 러시아 제국 권력의

- 재현], 『러시아연구』, 러시아연구> 22권 2호. 2012, pp.161~198.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역음, 『조선 사람의 세계여행』, 글항아리, 2011.
-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역음, 『세상 사람의 조선여행』, 글항아리, 2012.
- 김유철 외, 『동아시아 역사 속의 여행-경계, 정보, 교류』, 산처림, 2008.
- 메리 루이스 프렛 저, 『제국의 시선』, 김남혁 역, 현실문화 2015.
- 임성모 외, 『동아시아 역사 속의 여행-네트워크, 정체성』, 산처림, 2008.
- Абашин, С. Н. и другие,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8.
- Антошко, Я. Ф. Соловьёв, А. И. *У истоков Якарта: К 15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 П. Семёнова-Тян-Шанского*, М.: Мысль, 1977.
- Бобровников, В. “Анатолий Ремнев как историк имперско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Ab Imperio*, vol. 1, 2012, 151~159.
- Золотницкая, Р. Л. “Корни памяти к 170-летию Петра Петровича Семенова-Тян-Шанского,”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 15 (3448), 1997.
- Козлов, И. В. *Пётр Петрович Семёнов-Тян-Шанский*, М.:Про-свещение, 1983.
- Козлов, И. В. Козлова, А. В. *Пётр Петрович Семёнов-Тян-Шанский, 1827-1914*, М.: Наука, 1991.
- Комаров, В. Л. (ред) *Извес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 71. Вып. 4. Москва, 1939.
- Кукрак, С. И. ‘«Мемуары» П. П. Семенова-Тян-Шанского-выдающееся явление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Для пользы Отечества: к 185-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 П. Семенова-Тян-Шанского*, Рязань, 2012.
- Леонов, Н. И. *Пётр Петрович Семёнов-Тян-Шанский (К 100-летию первого путешествия в Тянь-Шань в 1856 и 1857 гг.)* М.:

Географгиз, 1957.

Милокова, А. М.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в Российски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ах (конец XVII в. – 1917 г.)* СПб.: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1994.

*Научное наследие Петра Петровича Семенова-Тян-Шанского и его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современной науки*, Липецк: ЛГПУ, 2007.

Никитин, Афанасий. *Хождение за три В. П. моря Адрянова – Перец*, М–Л: Изд.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58.

Остроухова, Е. И. Сурина, А. Д. *Для пользы Отечества: к 185-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 П. Семенова-Тян-Шанского*, Рязань, 2012.

Плоских, В. М. (ред.), *По следам путешествия П. П. Семёнова-Тян-Шанского*, Бишкек: Издательство КРСУ, 2007.

Попова, И. Ф. (ред.)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в конце XIX – начале XX века*, СПб: Славия, 2008.

Потапов, А. Н. “Хозяин Белого флигеля,” *Московский журнал*, 2013, № 4.

Шокальский, Ю. М. ‘П.П. Семёнов-Тян-Шанский,’ В. Л. Комаров (ред), *Извес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 71. Вып. 4, Москва, 1939.

Bailey, Scott C. Matsushita. *Travel, Science, and Empire: The Russian Geographical society's Expeditions to Central Eurasia, 1845-1905*, University of Hawaii, 2006.

Becker, Seymour. "The 'great game': The history of an evocative phrase." *Asian Affairs* 43.1, 2012, pp. 61~80.

Hokanson, Katya. “Russian Women Travelers in Central Asia and India,” *The Russian Review* 70 (January 2011): pp. 1~19.

Kemper, Michael & Conermann, Stephan (eds.), *The Heritage of Soviet Oriental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1.

- Kivelson, Valerie. *Cartographies of Tsardom: the Land and its Meanings in Seventeenth-Century Rus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 Knight, Nathaniel. "Was the Intelligentsia Part of the Nation? Visions of Society in Post-Emancipation Russia," *Kritika: Explorations in Eurasian History*, 7(4), September 2006, pp. 733~758.
- Knight, N. 'Science, Empire, and Nationality: Ethnography in the Russian Geographical Society, 1845-1855,' Jane Burbank, David L. Ransel (Eds.). *Imperial Russia: New Histories for the Empir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1998.
- Kollman, Nancy S. "Pilgrimage, Procession and Symbolic Space in Sixteenth-Century Russian Politics", eds, Michael S. Flier and Daniel Rowland, *Medieval Russian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 Lincoln, W. Bruce. *Petr Petrovich Semenov-Tian-Shanskii: the Life of a Russian Geographer*, Oriental Research Partners, 1980).
- Morrison, A. S. *Russian Rule in Samarkand 1868-1910*, Oxford, 2008.
- Pratt, Mary Louise.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 Semenof P. P. and Michell, John. "First Ascent of the Tian-Shan or Celestial Mountains, and Visit to the Upper Course of the Jaxartes or Syr-Daria, in 1857," *The Journal of 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 of London*, Vol. 31, 1861, pp. 356~366.
- Slezkine, Yuri. *Artic Mirrors : Russia and the Small Peoples of the North*,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Tolz, Vera. *Russia's Own Orient: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Oriental Studies in the Late Imperial and Early Soviet Perio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Russian Perceptions of Central Asia Manifested in the Travel Writing of the Mid-19th Century

— “Travel to the Tian-Shan” by Peter Semenov  
Tian-Shanskii —

Ki, Kye-Hyeong\*

Travel writing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record of the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he prejudices of other cultures and at the same time experienced the unfamiliar and exotic worl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Central Asia was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Russian traveler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oncrete aspects of other perceptions in the travels to Central Asia. To this end, the paper analyzes “The Travel to the Tian Shan” that formed the perception of Central Asia in Russian society since the mid-19th century. In Chapter 2, it analyzes the understanding of Russian society in Central Asia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n Chapter 3, it deals with the details of “Travel to the Tian-Shan,” a travelogue written by Peter Semenov. Thus, this paper attempts to reflect on the fundamental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cross-cultural perception of Russia.

---

\* Hanyang Univ.

Key words: Travel to the Tian-Shan, Russian Empire,  
Expedition of Central Asia, Russian Geographical  
Society, Peter Semenov Tian-Shanskii

필자 E-Mail: kyehyeongki@hanmail.net

투고일: 2017년 04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7년 04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4월 30일